

現代詩에 있어서의 自己同一性 危機

姜 南 周*

차 레

- | | |
|--------------------|---------------------|
| 1. 서정시와 자기 동일성 문제 | 4. 비인간화와 동일성 회피 |
| 2. 서정시의 통시적 동일성 부정 | 5. 자아와 주변인적 반응 |
| 3. 상상력의 차단과 동일성 회피 | 6. 동일성의 위기와 동일성의 회복 |

1. 서정시와 자기 동일성 문제

서정시는 미적 체험의 소산물이다. 시에서의 미적 체험은 자아와 세계의 만남이 동일성의 획득을 이룩했을 때 가능해진다. 서정시에 있어서는 시정신 역시 동일성이라고 하는 자아와 세계의 일체감 획득 지향성에 근본을 두고 있다.¹⁾

시는 원칙적으로 서정 양식에 속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서사시나 극시와는 달리 서정시의 경우는 서정성을 본령으로 한다. 우리 시는 전통적으로 서정시다. 이 서정시는 서정적 자아가 세계와의 만남을 통하여 세계를 자신의 내부로 끌어들이고 그것을 내적 인격화하고 있다. 그 과정은 실제로 자아와 세

* 부산수산대 교수

1) 金垓五, 詩論, 三知院, 1991, p. 27.

계의 화해와 갈등 관계 속에 있으며, 자아는 세계에 대한 자아의 욕망, 가치관, 감정에 적합한 것들을 상상적으로 만들어 그것에 동화(assimilation)하려는 심리적 기제(defence mechanism)를 발동함으로써 동일성을 이룩하려고 하고 있다. 서정시에서는 이 밖에도 심리적 퇴행(regression), 억압(repression), 합리화(rationalization), 부정(denial), 투사(projection)와 같은 기제를 통하여 자아실현을 피하고 있으나 이 역시 동일성 획득을 지향하고 있음에 다른 아니다.²⁾

그러나 최근 우리 시의 한 경향은 이러한 통시적 동일성 지향의 서정시가 동일성 상실의 현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이는 현대시에 있어서 자기 동일성의 위기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동일성의 상실이나 동일성의 위기는 동일성 회복의 의지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서정성의 완전한 상실이나 해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대시의 서정성이 비동일성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현대시의 이같은 통시적 서정성 부정, 상상력의 차단현상, 자아분열과 자아상실, 그리고 자아의 주변인적 반응은 현대시에 있어서 자기 동일성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같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2. 서정시의 통시적 동일성 부정

한국 현대시에 있어서의 기존 서정시는 도식적이었다. 개인적 정감의 토로, 자연과의 교감, 향토성 표출 등 거의 모든 서정시가 개인적 감성에 의존하면서 서정적 자아가 대상(세계)과 만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우리 서정시가 갖고 있는 통시적 동일성이었다.

서정시에 있어서의 자아와 세계와의 만남은 세계와 자아가 구별되지 않을 만큼 가까워 거리가 없었고 서로 동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동화는 대상이 자아에 끌려 대상의 독립적 의미마저 상실되고 있었다. 황조가에서부터 고려가요, 조선조의 시조, 김소월, 김영랑, 박두진 등의 시에 이르기까지 이

2) 姜南周, 反應의 詩論, 螢雪出版社, 1990. p. 146.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서정시에서는 이같은 도식성이 파괴되면서 동시에 통시적 서정성의 부정 현상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는 서정적 자아와 대상이 서로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졌던 세계와 자아가 균형을 잃고 있어 동일성이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서정시의 동일성이 이같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화자가 대상과의 사이에서 격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에서 비롯된다. 아름답던 자연이 과학자에 의해 해부되었을 때 그것은 이미 화자와는 떨어진 물질에 불과하며, 정신적 교류는 차단되는 것이다. 감성이 교류되고, 심정을 호소할 수 있었던 자연이 분석의 대상, 과학적 질료의 대상으로 자아와 떨어져 있는 존재임이 확인되었을 때 기존 서정시가 보여주었던 도식성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이 내재할 수 없는 시적 대상은 결국 화자와의 사이에 간극을 만들고, 서정시로서의 성질은 흐려지게 된다. 그 간극은 서정시의 통시적 서정을 부정하면서 자기 동일성 위기의 징조를 강하게 띠게 되는 것이다. 20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개인주의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자아와 타자와의 융합을 거부하게 되었고, 산업화, 도시화가 갖는 비인간화는 세계를 자신의 품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종래의 노력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결국 서정시의 자기 동일성은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3. 상상력의 차단과 동일성 회피

시는 상상에 의해서 재창조된 것이다. 이미 있었던 것에 첨가해서 새롭게 만든 것이 시라고 해도 좋고 제 1의 창조자인 창조주(Platon이 말하는 창조주-神)가 창조한 세계의 바탕 위에서 그것을 근거로 새롭게 만든 것이 시라고 해도 좋다. 어떻든 그것은 시인의 경험을 근거에 깔지 않아서는 안되며, 그 경험 위에서 상상에 의해서 구축된 것이 서정시다. 그렇기 때문에 서정시는 경험에 의해서 인간적인 것으로 되며, 세계와 자아와의 관계에서 그것은 동일성을 획득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동일성은 세계와 자아의 유사성, 근사성 또는 자아의 모습을 몽상을 통해서

갈망하는 것으로부터 싹트게 된다. 서정시는 그래서 상상을 배제했을 경우 동일성 지향의 본래 모습이 깨어지고 그 성립은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는 우리에게서 상상을 뺏어가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 가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상상이나 가상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흔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의 근거를 잃게 되며, 가령 상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리얼리티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진실 그 자체를 허구로 보면서 문학은 더 이상 리얼리티를 반영하지도 못하고 상상에 의해서 세계에 첨가되는 것일 수도 없다는 비극적인 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창작도 하나의 비평이라고 보며, 자아반영적 성격과 형식적 안정성이 시에는 이미 없어졌다고 볼 때 거기에는 동일성이 발붙일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상상력이 이같이 차단된 곳에서는 서정시가 동일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결국 찌그러진 서정시가 있게 될 수밖에 없다.

4. 비인간화와 동일성의 파탄

동일성의 욕구는 원래 인간의 본능이다. 그 가운데서도 질서와 안정에 대한 인간적 본능이 작용할 때 동일성의 획득은 더욱 정확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적 현실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사회에 소속감을 굳히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함께 사는 것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동일성을 찾게 되는 것이다. 지속적인 “나”로서의 동일성이 스스로 동일화 하려는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어느 곳에서 어느 곳에도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될 때 동일성은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위기를 맞게 되는 원인이 된다.³⁾ 이렇게 되었을 때 자아는 분열현상을 보이고, 자아상실, 인간성 해체의 현상에 의해 동일성의 파탄을 맞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자아분열, 자아상실, 인간성 해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동일화로 받아들였던 자연의 해체, 세계 상실에 의해 드러난

3) 朴喆熙, 한국시의 의식과 지향(중앙문예, 82. 가을호), p. 237.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음을 지각했을 때 우리는 고립주의에 빠지며, 세계와의 화해보다 세계를 향한 거부, 저항,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동일성은 파탄을 맞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노사는/공동운명 한 가족이라고/고향이 같고 성씨가 같고 학교 동문이라고/입사시켜준 먼 친척이라고/심란하게 맘 약하게 안면을 맞대던/이사 부장 과장 계장 관리 놈들과는/노동자 편과 자본가 편으로 확연하게 갈라내며/죽었다 깨나도 하나 될 수 없는 아군 적으로/명확한 전선을 가차없이 매듭지어/단호하게 머리띠를 질끈 묶는다.

박노해 「머리띠를 묶으며」

앞의 시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목적시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는 노사 현장에서의 비인간화를 말하고 있는 시임에는 분명하다. 적과 아군과의 대치, 비인간화라는 개념 속에는 분명히 동일성의 파탄이 들어 있다. 동화보다는 이화, 자기 긍정보다는 자기 부정이 주는 자아상실 또는 적개심이 시의 전면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질주의와 물량화가 인간성 위에서 군림하고 있을 때 그것은 인간에게 거대한 위협이 된다. 그런 위협 아래서는 자아의 동일화보다 어디에서도 그런 위협과 동일화 할 수 없는 대립과 갈등, 자아위기, 자아상실이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의 시는 자기 동일성의 위기를 읊조릴 수밖에 없으며 파탄으로 향하는 자아의 참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5. 자아의 주변인적 반응

상징이 파괴되었다고 믿을 때 자의식은 공존의 중심으로 밀려난다. 주변인의 정서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어를 어원으로 했을 때 상징은 나누어진 다른 반쪽과 합쳐서 확인된 동일성의 증표라는 어원적 의미가 있다. 이 동일성의 증표가 확인되었을 때 상징이 존재하며, 사고와 행동은 자의식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⁴⁾ 그렇지 못하여 시가 자기 동일화의 구심점을

4) 문덕수, 시론, 시문학사, 1993, p. 204.

없고 상징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주변인 의식의 일반화 현상이 시에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특히 이 시대 우리 시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승한 것은 시대적 긴장과 변화, 절망 등을 시가 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⁵⁾

상징이 파괴된 시대의 자아에게는 원래의 얼굴이 없고 중심에 서지도 못한다. 상실된 절반 때문에 제 모습이 없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안정도 휴식도 없는 그는 주변에 맴돌 수밖에 없다. 시는 주변인적 반응을 보이게 되며 삶의 절망, 병든 정신을 반영하게 된다. 그리고 잃어버린 중심에 대하여 노래하게 된다.

우리는 어디서 왔나 우리는 누구냐/우리는 하품하는 입은 세상보다 넓고
/우리의 저주는 십자가보다 날카롭게 하늘을 찌른다/우리의 행복은 일류
학교 배지를 달고 일류 양장점에서/재단되지만 우리의 절망은 지하도 입
구에 앉아 동진/떨어질 때마다 굶신거리는 것이니 밤마다/손은 罪를 더듬
고 가랑이는 병약한 아이들을 부르며/소리없이 운다 우리는 어디서 왔나
우리는 누구냐

이성복 「다시 병든 유곽에서」

삶이 절망을 넘어서 거의 치욕에 가깝다는 것을 자유로운 연상과 의식적인 자기 파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우리 시대가 바로 유곽과 다름 바가 없다는 인식⁶⁾을 보이고 있는 시대. 유곽에서의 삶은 정의로운 삶이 되지 못하며 중심이 아니라 주변적 삶이자 그 표현이다. 일류 학교, 일류 양장점에서 제외되었을 때 느끼는 정서는 주변인적 정서이다. 동시에 비꼬인 현실에 대한 거부와 저항의 정서에도 해당된다. 지하도 입구에 앉아 있는 자, 소리없이 우는 자, 그들은 중심 인물이 아니라 주변인물이며, 주변인적 반응은 동일성 위기 또는 동일성 상실의 반응인 것이다.

어느 계층, 어느 사회, 어느 집단에서도 소속감을 상실한 채 뒤섞여 살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들은 현실에 좌절한다. 그들에게는 고향에서 쫓겨난 감정이 있을 뿐이다. 그들에게는 모두가 낯설고, 모두는 그들을 외면한다. 그들은 드디어 세계에 대립하고 또 때로는 세계에 원한을 품는다. 그리고

5) 曠喆熙, 앞의 책, p. 237.

6) 朴海鉉, 作家를 찾아서(中央經濟新聞, 1989. 9. 5.)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시는 비탄에 빠지거나 저항적이거나 아니면 난해로 치달게 되기도 한다.

이같이 세계의 자아화를 포기하고자 하는 시를 우리는 동일성을 상실한 주변인 반응의 시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다. 함께 뿌리 내리고 살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창작된 이런 시가 전환기에 특히 많았다는 사실도 그런대로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6. 동일성의 위기와 동일성의 회복

자기 동일성 위기, 또는 자기 동일성 상실의 시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자기 동일성을 부정하는 시인가.

사람이 사물을 볼 때 사물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의식 또는 무의식 가운데 지식의 프리즘을 통해서, 또는 관습화된 판단을 전제로 해서 사물의 표피만을 보기 마련이다. 그러나 시적 자아는 지식의 프리즘에 의해서 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물을, 관습의 철창에 갇혀 굳어 있는 사물의 실체를 바로 보려고 한다. 그것에는 삶의 참모습에 대한 갈구가 골격이 되어 있다. 비뚤어지고 거짓으로 되고 거꾸로 되어 자아와 분리된 실체를 본래의 모습으로 뒤집어 봄으로써 전도된 동일시를 회복하려는 것이 자기 동일성 위기의 시라고 봐야 할 것이다.

시를 쓰는 일은 자아를 바르게 확인하는 일이다. 진정한 자기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다. 올바른 삶의 인식을 위하여 지식이나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것이 시 속에 서있는 자아의 태도다. 순수한 세계, 순수한 자아를 찾기 위하여 진실에로 귀의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거꾸로 또 때로는 바르게 서서 세계를 모색을 하게 된다. 이는 동일성의 상실인 동시에 동일성의 회복을 지향하는 일이다.

1930년대나 1980년대의 시에서 이같은 자기 동일성 위기의 시가 많이 나타나던 것은 결국 자아가 익명의 존재로, 익명의 존재와 더불어 세계의 중심에서 빗나가 설 수밖에 없었던 가치전도의 현실 때문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자기 동일성 위기의 시는 자기 동일성의 구심력 획득을 보다 강렬하게 꿈꾸는 시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